

#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2.24~2015.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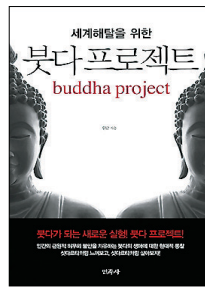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헤인	수오서재	6	달라이라마의 불교강의	달라이라마, 문명환	불광출판사
2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문답	장웅연	불광출판사	7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유희근, 신김한준	효림
3	약사유리광칠보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8	한권으로 읽는 불교리	지명스님	주조종출판사
4	법문상의 명백하고 실천 가능한 길을 찾는 법	법륜	나무의마음	9	호흡이 주는 선물	래리 로젠버그	나무의마음
5	설전(법정이론고성철이답하다)	성철, 법정, 원택	책읽는심	10	스님의 공부법	자현	불광출판사



## “지금 우리는 붓다가 되는 실험할 때”

### 붓다 프로젝트

원담 스님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 8500원



삶을 살아가는 데 순간마다 생겨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갈등이다. 그러면 이 갈등을 부처님의 지혜로 풀어가는 방법은 없을까? 이 책에는 붓다식 해결법 등이 제시돼 있다. 저자는 이를 통해 현대인들의 욕망, 현대 사회의 모순 등을 비판하고 우리가 지향할 대안적 삶의 형태를 설명한다. 이 책의 초점은 후자쪽에 더 가깝다. 저자 원담 스님(사진)은 고타마 싯다르타라는 한 '인간'의 삶을 재조명함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붓다의 생애 연대기순으로 조맹  
에고 사라지는 고요한 경지 추구  
“자기 초월해 내 삶의 주인공 되자”**

한국서도 그의 책들이 다양하게 소개됐다. 켄 윌버가 만든 용어인 '아트만 프로젝트'는 아트만(atman), 다른 말로 '영혼' '자아' '에고'가 자기를 실현키 위해 시공간을 무대로 인위적인 것을 창조해낸 활동을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건립한 문명과 역사가 전부 아트만의 투사이며 아트만의 사업 즉 '아트만 프로젝트'의 결과이다. 그것은 '자기보존 욕구에 갇힌 에고'가 에고를 무한 확장에 '진정한 나' '우주적인 나' '영원불사의 나'를 누리 고자 하는 활동이다. 전 세계의 자본주의화, 군사적 패권주의, 불평등의 심화, 환경파괴 등은 모두 이 아트만 프로젝트의 결과이다.

'붓다 프로젝트'는 이런 아트만 프로젝트와 대척점에 있다. 에고 강화를 위해 만든 장치들이 아트만 프로젝트 결과라면, 붓다 프로젝트는 에고가 사라질 때 완성되는 고요한 평화의 경지를 추구한다. 에고를 해제함으로써 갈등과 초조, 애증과 자기소모, 헛된 열정과 투쟁이 완전히 사라진 고요하고 청량한 자복을 위한 실험이 바로 '붓다 프로젝트'의 의미이다.

요컨대 '아트만 프로젝트'가 '자기'라는 울타리와 한계에 갇힌 것이라면, '붓다 프로젝트'는 '자기'를 훌쩍 뛰어넘어 내 삶의 주인이 자아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다.

겨낼 수 있을까? 싯다르타, 이 사람을 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가졌다. 강인한 몸과 수려한 외모, 고귀한 가문과 혈통, 최고의 학문과 무예, 권력과 재력. 그런데 세상 사람들 모두가 선망하고 희구해 마지않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그는 정동과 안락한 영도를 떠나 전언미답의 불모지로 탈주한다. 세계를 넘어서, 체제를 넘어서, 영도를 버리고 정신의 변경지대로 달려갔다. 그는 정신적인 개척자이며, 깨달은 전사다. 그와 함께 인류 새 실험이 시작됐다. 인류가 함께 깨어나기 위한 실험, 그것이 일명 '붓다프로젝트'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그러면 싯다르타는 어떻게 '붓다'가 되었는가? 원담 스님은 싯다르타가 품었던 질문과 그가 자신의 삶을 걸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왜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왜 어떤 사람은 죽도록 일만하고 부림을 당해야 하는가?' '붓다 프로젝트'는 이 같은 질문서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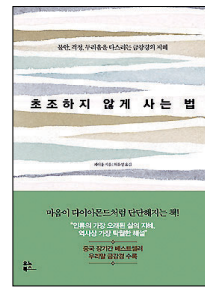
자기 마음이 놓인 자리를 알지 못하고, 내가 사는 세계를 바로 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 것, 답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무지(無知)와 무명(無明)이 아니고 무엇일까? 싯다르타와 보통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싯다르타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의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라는 울타리서 벗어나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길을 찾았던 것(붓다 프로젝트의 시작)이다. 저자는 우리도 붓다처럼 느껴보고, 붓다처럼 살아보라고 권한다.

**붓다 프로젝트, 내 존재 자체가 되는 것**  
붓다를 신적인 존재로 포장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붓다 자신은 '정신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늘 경계했다. 붓다는 인간을 넘어선 지고한 존재, 세상을 등진 자, 신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저자는 싯다르타의 고행상을 경외심을 일으키지만 불교가 염세주의와 고행주의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고행은 부처님의 일생 중 한 장면에 지나지 않는다. 고행상으로 부처님을 상징하거나 불교를 대표하는 일은 유익하지 않다. 저자는 오히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설법하시는 전법륜상을 불교의 상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초조하지 않게 살려면?... <금강경>읽어라

### 초조하지 않게 사는 법

페이용 지음 | 허유영 옮김 | 유노북스 펴냄 | 1만 4500원



가장은 정년은 커녕 언제라도 명퇴 바람에 휩쓸리지 않을까 불안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2년째 취업 준비중인 자녀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두렵고, 생활비에 작은 보탬이라도 될까 싶어 마트 계산원으로 나선 주부는 가스비,

자녀 교육, 남편 월급, 노후 준비 등 이런저런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하다.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삶... 세대와 성별, 직업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우리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불안, 걱정,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간다. 그 불안, 걱정, 두려움은 마음에 초조함을 만들고, 그 초조함은 다시 일상을 윤택다. 쉬고 싶지만 늘 죽도록 일해야 하고, 행복해지고 싶지만 언제나 불행해질 일만 일어나고, 자유롭게 싶어 할수록 어쩔지 생활의 탓에 얽매고 만다. 왜 그럴까? 2500여 년 전, 싯다르타도 같은 고민을 했고, 그의 생각이 담긴 오래된 책인 금강경에 그 이유와 대처법이 명쾌하게 나와 있다. 그의 깨달음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세상 모든 행위가 고통을 일으킨다. 둘째, 우리가 고통스런 것은 어리석은 욕망 때문. 셋째,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 고통없애는 유일한 방법. 넷째, 옳은 관념과 행동을 통해서만 고요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부처님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숙명처럼 안고 사는 초조함의 정체를 이 4가지 핵심 원리로 설명했다. 그리고 이후 나머지 인생을 이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데 보냈다. 부처님 지혜를 전하는 모든 불경 중에서도 금강경은 가장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고 명쾌한 책이다. 그렇다고 불교도를 위한 경전으로만 여기면 오해다. 실제로 한 경제학자는 순전히 경제학의 관점에서 금강경을 연구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방법이다. 금강경이 없어도 이 세상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금강경이 없는 세상은 어지러운 혼돈 속에서 거칠게 떨거지며 움직일 것이다."

왜 그럴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헤쳐 나갈 때 꼭 필요한 나침반 같은 삶의 지혜가 금강경에 명

확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다. 스승과 제자의 일종의 대화록인 금강경은 오로지 생과 사의 굴레에서 초조하게 살아가는 개인의 삶의 해방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 이해하기가 쉽고, 메시지가 명쾌하며, 무엇보다 대단히 현실적이다. 무려 2500년을 이어 내려온 인류 최초의 자기계발서인 셈이다. 그만큼 영향력도 실로 강력해서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영혼을 깨달음과 자유의 길로 인도했다. 지금도 금강경의 지혜는 남녀노소 누구나, 지위가 높은 낮은 누구나, 하는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누구나 삶의 나침반으로 삼을 가치가 있다. 아니,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 과부하에 걸린 현대인에게 그 지혜가 더욱 절실하다.

금강경에서 세상은 고통의 바다이고, 인간은 어리석은 욕망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고 했다. 또 그 고통서 벗어나려면 올바른 관념과 행동으로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 속세를 떠나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할까? 속세를 떠나고 싶지 않은 우리 같은 일반인은 온갖 인연으로 얽히고설킨 일상 속에서 어떻게 초조해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르지 않는다"

### 초조함의 정체를, 4가지 원리로 설명

그 비결은 금강경에서 안내하는 올바른 관념과 행동을 익히는 것이다. 그러면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 이 순간 바로 초조하지 않게 살 수 있다. 먼저 이 세상과 삶은 갖가지 형상과 소리로 덧씌워진 겉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겉질 너머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볼 수 있어야 한다. 본질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것도 고정되지 않았고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사실이다. 자아의 이미지도, 타인의 이미지도, 우주만물의 이미지도, 시간의 이미지도 머물러 있는 게 없다. 있지만, 없는 것이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게 한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니, 무엇이 집착한다 말인가! 모든 것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제 마음은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물처럼 흐른다. 내 삶 속에 힘든 일과 슬픈 일이 오고 기쁜 일과 즐거운 일이 오면, 그에 따라 마음이 일어난다. 고통스럽거나 슬프고, 기쁘거나 즐거울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변화의 과정에 있는 것임을 알기에, 그 감정에 집착하거나 머무르지 않는다. 그저 차분히 관조하면서 매 순간을 산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물론 금강경을 읽는다고 곧바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신 금강경을 읽으면,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김주필 기자 kimji4217@hyunbul.com

## 주역과 불교의 융합과 회통!

## 불법의 정수를 담은 최고의 논서!



# 주역선해 周易禪解

우익지옥 저 | 길봉준 역주 | 신국판 양장  
1,248쪽 | 값 85,000원

유교의 최고 경전인 『주역』을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한 유일무이한 책!

명대 4대 고승의 한 사람이자 중국불교의 마지막 완성자로 추앙받는 우익지옥 선사가 천태와 유식, 화엄사상 등을 종합무진으로 응용하여 『주역』의 심오한 이치를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주역 및 선해 원문과 1,100개가 넘는 상세한 각주!

### 용수보살의 불교대백과사전!

반야사상을 총괄한,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논서!  
방대한 불교사상의 바다를 헤쳐 나가는 필수 길잡이!  
신수대장경과 중국 고간본을 대조하여,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적 언어로 풀어낸 역작!

# 대지도론 大智度論

용수, 구마라집 漢譯, 석법성 韓譯  
전5권(총 4,000여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세트가 270,000원

